

김 용 식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여행의 기록으로서
이미지와 자아성찰

2007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과
조은정

여행의 기록으로서
이미지와 자아성찰

김 용 식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7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화학과

조은정

인 준 서

조은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박영근 인

심사위원 김정락 인

심사위원 이종협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 논문으로서 2005년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작품의 전개과정에 있어 표현하고자 했던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삶의 여유를 뒤로한 채 분주하게 살아간다. 여행은 그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선사한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의미를 넘어서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떠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작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은 본인이 여행에서 갖게 된 체험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여행을 통한 생각들과 느낌들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고와 삶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이를 통해 자아성찰과 내적 상처에 대한 치유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여행의 본연적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본인에게 여행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여행을 통하여 찾아 가는 자아의 표출 의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과정이 가져다주는 치유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였다. 여행의 기록으로부터 이미지 되는 과정과 그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형상화 과정으로서 본인의 여행 감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드로잉의 의미와 표현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드로잉의 판화적인 구현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방법적인 대안에 대해 연구해 보았다. 여행의 시간성 표현에 있어서 색과 얼룩, 구김 등의 형상화 과정에 대해서 논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제작된 본인의 작품들을 통해 본인이 표현하고

자 한 ‘여행의 기록으로서 이미지와 자아성찰’이 실제로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 내용과 형식적 측면에서 서술 하였다.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논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본론	
1. 여행의 의미	3
2. 여행이미지를 통한 자아성찰 표현	6
3. 조형적 특성	10
1) 기록으로서의 이미지	10
2) 감성이미지로서의 드로잉	13
3) 시간의 이미지	17
4. 작품분석	20
III. 결론	39
참고문헌	
ABSTRACT	

I. 서론

매마르고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 속의 현대인들은 현실에 무의식적으로 적응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현실로부터의 탈출과 삶의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꿈꾼다. 이렇듯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는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이 숨 쉬고 있는 것이다.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진정한 자아와 만나게 하는 촉매제이며 삶의 또 다른 통로이다. 또한 여행은 자신과의 투쟁하는 현장이며, 기존의 구속된 현실에서 탈피하는 자유의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은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사소한 경험, 그 속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여행지 주변에 펼쳐진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를 통해 삶의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은 여행을 통한 내적인 사유를 지향한다. 이는 여행에서 만나는 풍경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다. 여기서 풍경이라 함은 여행지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본인은 여행의 예술적인 승화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는 자신의 본질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자 함이다. 그 표현의 시작은 여행일기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업은 여행의 기록에서 나온 솔직한 감성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표현은 감정의 불순물을 배설하는 행위로서 카타르시스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마음의 상처를 표현하고 발산시켜 치료하는 일종의 정신적 승화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인은 그러한 표현의 방법으로 드로잉을 택하였으며 이는 어

면 장르에도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드로잉은 그 자체로서 본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완화적 속성과 드로잉이 가지고 있는 역동적인 속성의 표현을 서술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으로 여행이라는 체험을 통해 느낀 감정의 표현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본고의 본론 첫 번째 장에서는 여행의 의미에 대하여 서술하고 두 번째 장에서는 자아성찰을 위한 여행 이미지의 표현 의도를, 세 번째 장에서는 제작한 실제 작품에서 사용되었던 표현의 방법적 문제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여행의 현장성을 담은 기록의 이미지, 드로잉과 드로잉의 완화적인 구현 문제, 시간성을 표현하기 위한 검은 색과 파스텔 톤 색채의 의미와 제작 방법을 설명하였다. 구체적인 작품 설명을 위해 도판을 제시하고 작품의 내용 및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논지를 바탕으로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작업과정에 있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여행의 의미

보들레르¹⁾가 「여행에의 초대」에서 언급한 대로 사람들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향수와 조바심 나는 호기심, 사람들을 비참한 일상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자 하는 열병을 갖고 있다.

인간의 본질은 움직임과 쉼으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를 수반한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르네상스와 그 이후 몇 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들은 처음부터 우리의 본능 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동성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실현된 결과일 수 있다.

의미적 이동은 다르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도시화와 기계화로 인한 인간상실, 공해와 소음의 심화는 인간의 도피 욕구를 자극시키는 등 단순한 이동이 아닌 새로운 의미의 여행의 시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행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낯선 공간에서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기고, 체험의 추억거리를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새로운 변화의 충격과 위기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인간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만남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바로 여행이다.²⁾

또한, 여행은 “노동 못지않게 인생에 있어 가장 충실해야 하고, 자기의 삶을 생각하며,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문자 그대로의 행복을

1) Charles-Pierre Baudelaire, 1821.4.9~1867.8.31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시인. E. A.포를 번역·소개했고, 대표작은 《악의 꽃》이다. 랭보 등 상징파 시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낭만파·고답파에서 벗어나, 인간심리의 심층을 탐구, 고도의 비평정신을 추상적 관능과 음악성 넘치는 시에 결부했다.

2) 이광원, 《여행학개론》, 학문사, 2000 p.1

찾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행은 많은 예술가들이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행사이고, 그것의 창조적 성과들은 글이나 그림, 음악 등 예술의 여러 수단을 통해 표출된다.³⁾

여행과 작가의 관계에 대해서 폴 모랑⁴⁾은 “존재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떨쳐버리기 위해서 여행을 한다.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저쪽까지를 탐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여행이 작가에게 중요한 발상의 계기가 됨을 지적하고 있다. 여행가이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단순한 산책자가 아니라 어떤 필요성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작가로서의 절반과 여행가로서의 절반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시도가 이 절반씩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만일 그가 작가로서 작품의 중심에서 있다면 그의 또 다른 절반인 나는 지평선 건너 저쪽을 방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 이국의 경험들이 본인의 작품을 구성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이것이 자기 수련의 경험이든 아니면 결합과 불충분함과 노쇠함을 동반한 자기 재발견이든지 간에 하나의 보편성, 즉 미지를 경험한다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⁵⁾

이러한 신선한 경험은 그것을 붙들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한다. 또한 여행지에서 경험하는 아름다움과 같은 감동은 그 순간을 소

3) 구자인, 《도시와 빈곤》 제 23호, 한국도시연구소, 1996. p.142~159

4) Paul Morand, 1888.3.13~1976.7.23

파리 출생. 정치학원에서 수학하고, 외교관으로서 각지를 돌아다닌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소설 《밤이 열린다》(1922) 《밤이 닫히다》(1923)를 발표하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과 퇴폐를 그린 신감각파적인 서정적 필치로 일약 유명해졌다. 코스머폴리턴 문학을 창조한 한 사람이다. 처음에는 시인으로서 출발하여, 상드라르나 라르보 못지않은 작품을 썼는데, 질풍과 같은 격렬한 리듬으로 읊었던 초기의 시작품에도, 병든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적나라한 이미지로 생생하게 표현한 것들이 많다. 시집으로는 《아크등(燈)》(1919) 《체온표》(1920)가 있다.

5) 이진홍, 《여행이야기》, 살림출판사, 2004, p.85~86

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며 예술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제대로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다.

인상주의 화가 빈센트 반고흐(1853-1890, 네델란드 화가)부터 개념 미술가 온카와라(On Kawara) 까지 시대를 넘어서 많은 예술가들이 여행에서 영감을 얻고 표현하였다. 특히 온카와라(On Kawara)는 1953년부터 1964년까지 계속된 첫 번째 여행을 통해 리얼리즘과 초현실주의에 젖어 있던 작품 양식에서 벗어나, 여행자의 부유하는 정체성을 작품에 담았다. 점차 인물과 물체의 모양은 글자와 숫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뉴욕에 잠시 정착하는 듯 하였으나 여행의 시작과 동시에 평생의 방랑길이 열렸다.



<도판1, 2, On Kawara, installation view, 1966, Thirty-six Date-Paintings of 35 years from the Today Series(1966-2000). Dia Art Foundation; Lannan Foundation, long-term loan; collection of the artist. Photo: Bill Jacobson >

본인도 방랑의 과정으로서의 가치아래에서 여행을 하며 기억하는 잔상을 표현하려 한다. 여행을 통해 얻어지는 낯선 일상을 이야기하고, 주관적으로 경험한 기억속의 이미지들을 화면에 투영한다. 여행은 본인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선택한 본인의 성향에 대해서도 말해 줄 수 있다.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설렘,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의 사색, 목적지에서의 새로운 만남. 이 모든 과정은 본인이 본인의 내면과 마주할 수 있는 통로로서 자신을 성찰하는 의미로 여행의 인상을 표현한다.

2. 여행 이미지를 통한 자아성찰 표현

혼자서 조용한 커피숍에 앉아 시간을 보내 본 사람이라면 자신의 존재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음성이 의미 없는 음악소리와 뒤섞여 털 뭉치처럼 엉켜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본인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테두리가 생겨나고 그 순간 공간은 나와 타인으로 나뉜다.

이런 느낌은 혼자 떠나는 여행에도 존재한다. 일상 속에서 대중이라는 바다를 부유했던 본인은 여행이라는 날개를 달고 대중을 벗어나 철저한 혼자를 경험한다. 그 독립된 공간 속에서 타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나 관조자의 입장에서 주위를 인식한다. 즉, 개인이 느끼는 존재감만큼이나 대중 속에서의 익명성이 부각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여행에는 존재한다. 이는 여행의 분리된 공간이라는 상황이 예술적 전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여행 관련한 동영상이나 팸플릿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것들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어두운 직관을 통해 야자나무, 맑은 하늘, 하얀 해변을 보여주는 노출 과다의 사진들, 이정보다는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사실인양 쉽게 현혹되게 한다. 삶의 다른 영역에서라면 회의와 신중을 자랑할 만한 사람들도 이런 요소들과 마주치면 원시적인 순수와 낙관의 상태로 돌아가고 만다.⁶⁾

본인이 화면 안에 담고 있는 이국적인 이미지도 그러한 순수를 지향한다. 본인은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만나는 풍경들과 그 어떤

6) 알랭 드 보통, “여행의 기술”, 이레, 2004, p.17

가이드북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공간을 만나고자 한다. 그렇기에 본인의 작업은 단순히 명소나 이미지의 재현이 아닌 본인이 경험한 장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자 장소가 가져다주는 감성을 기억해 내고자 하는 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과 나눈 작은 메시지는 작품 안에서 소통의 의미를 지닌다. 본인이 여행하는 동안에 수집한 여러 가지 흔적들은 실타래처럼 기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기차표나 영수증 등이 시간성을 표현하여 일기장 속에 날짜와 요일 등을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 상황을 직접적으로 재현한다. 그 안에는 영수증을 주고받는 ‘관계’가 얽혀있고 이곳에 있는 나를 저곳으로 데려다 놓는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이 물건이 잠시나마 내 것이 되게 하거나 갖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권리 혹은 그 증표로서의 기능이 담겨있다. 이러한 관계와 상호 연관성이 갖는 의미가 화면 안에서는 감정의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재현을 통해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즉, 무릎 꿇은 낙타의 희생과 훈련되어진 순응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자 본인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벨은 ‘미학의 모든 체계의 출발점은, 특수한 정서에 관한 개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⁷⁾ 예술은 그 장르에 상관없이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나온다. 일상적인 삶에서부터 일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상황까지 모든 경험으로부터 창작은 시작된다.

또한 기억은 기억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재구성되고 재창조되

7) 루돌프 아른하임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下”,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p.430

는 하나의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이러한 기억은 우리들 각자가 그 풍부한 목록을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여행의 기억과 흔적을 끄집어내어 표현하는 것의 의미는 익명성에 파묻혀 현대인으로 살아가는 본인의 과거의 소통을 통해 자아를 재인식 하는데 있다. 이는 본인에게 있어 여행 그 자체로 삶의 이유가 될 만큼 의미가 강하다. 이는 자아의 재인식 과정으로서 여행을 통해 자아 정체성은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망각되기도 한다. 이는 일상이 반복되는 지루한 생활 속에서 상실감을 더욱 크게 만든다. 하지만, 여행을 통해 자신에 대한 탐구와 관찰이 남긴 흔적들은 대중 속에 파묻힌 본인의 자의식을 깨우는 수단이 된다.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생활의 단편들을 표현하는 과정과 행위는 그 자체로서 기억을 통한 여행의 재구성이며 치유의 과정이다. 이는 곧 여행을 통한 기억과 흔적을 예술이라는 표현의 전도과정에 이룰 수 있는 순기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본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숨기고 대중 속에 파묻힌 현대인으로서의 일원에 불과하다. 그 치유의 방법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 본인은 좀 더 적극적인 치유의 수단으로서 여행을 선택하였다. 여행을 통한 일상은 본인을 독립적으로 만들고 타인과 관계 맺어지는 하나의 일원으로 묻기도 한다. 본인은 대중 속에서 독립적인 자아, 아니면 대중 그 자체로서 강하게 인식하게 된다.

본인에게 있어 여행은 동반자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절대적 치유의 원천이 된다. 혼자 하는 여행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일상 속에서는 그 누구도 묻지 않던 수많은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작품은 위 과정을 통하여 상처와 일상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3. 조형적 특성

1) 기록으로서의 Image

본인의 작품은 여행의 경험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록의 형식을 취하였다. 기록은 기억을 저장하기에 어떠한 망각도 기록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작업은 기록과 수집으로 시작한다. 여행에서 본 이미지를 순간적인 드로잉이나 사진의 형태로 수집하였다. 또한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기차표, 명함, 일기, 메모 등을 시간의 진행 순서와 함께 구성되어졌다. 기록의 의미를 지닌 사진이나 일기와 편지와 같이 녹녹한 감성이 묻어난 흔적은 여행에서 만나는 감정의 동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시간이 경과한 뒤 잊혀져가는 기억을 붙잡는 수단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록은 감정분출을 위한 해방구이며 미래의 기록을 위한 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권의 사증과 같은 이미지는 본인이 경유한 여행지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 기능을 지닌다. 본인의 작업에 등장하는 스탬프는 강한 조형성을 지니면서, 여행의 경로를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스탬프 속 날짜와 장소 등은 비록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한 문자가 아닌 감성적인 이미지로써 읽혀질 수 있다. 공항이라는 낯선 나라의 문턱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 긴 줄을 기다리다 여권에 도장을 받았던 그 순간의 기억으로 형상화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탬프가 기록된 여권은 여행의 출발에 시작되는 감성 혹은, 끝자락에 극대화된 감성을 기록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본인은 개인적 경험과 시간의 흐름을 일기쓰기라는 행위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이미지화하여 화면 안에 담았다.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행위는 시각 자료들을 모으고 질서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본인은 체험으로부터 얻어진 무수한 감정과 생각들을 그림일기 형태로 이미지화 하였다. 이것은 단순하면서 쉽고, 무언가 할 말을 찾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는 사과의 재현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는 어떠한 변형이나 가공도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러한 일기가 여행이라는 모험의 과정에 대한 집착이라면 수집되어진 영수증이나 메모 등도 같은 의미에서 해석될 수 있다. 본인은 여행이라는 행위의 진행과정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화면에서 엉키고 교차된다. 본 과정을 통해서 텍스트는 기록의 의미에서 시작해 글로서 읽혀졌다가 조형 형태로서 보이기를 반복한다.

본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형태의 글자들은 감정 이입과 함께 장식성 그리고 본인의 고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문자가 형상적 가치를 획득하는 순간부터 그 가치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의미를 텅 비게 하거나 빛나가게 하여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조형적 텍스트의 도움을 얻은 형태는 기억의 세계에서 연장되고 퍼져나감으로써 본인의 감성을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한 예로 아트 북으로 제작된 여행기는 여행이라는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본인의 감성을 전이한 것이다.

텍스트에 더해 수집과정에서 기록의 큰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사진이다. 본인은 여행을 하는 동안 수많은 사진을 찍고 이것은 ‘본다’는 것의 의미를 가진다. 결국 인화되어진 사진은 ‘본 것’을 모은다는 의미로 수집의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계

곳곳을 모으는 수집으로서의 의미를 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사진 찍힌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며 다시 말해 그것은 보여 지는 어떤 관계 속에 자기 자신을 기록하는 형태이다.⁸⁾ 사진은 경험의 단편으로서 경험에 의한 실재의 축소판이다. 본인의 작업과정에서 사진은 드로잉의 시작점이며 감성을 끄집어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진은 위의 것에서 머물지 않고 다양한 복사의 방식을 통해 축소 또는 확대되고, 잘리고 이어 붙여져서 조작된다. 본인은 이러한 기록이나 그것들이 재조합된 것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전사의 방법을 택하였다. 복사기는 종이에 토너를 고착 시키며 함축된 이미지에 라커시너를 발라 석판 위에 얹고 프레스기를 돌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은 본인의 생생한 실재의 표현 방식이다. (시물라르크한다-실제보다 더 실재)

본인은 작품 안에서 여행을 통해 얻은 수집품, 그림일기, 텍스트, 사진 등을 기록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예술적 도구를 통해 승화시키고자 하였다.

8) 원동석 외, “시각과 언어 1 - 산업사회와 미술”, 열화당, 1993, p195

2) 감성이미지로서의 드로잉

융⁹⁾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개인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가장 깊은 층에 고유형(Archetype)이 침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예술작품이 나온다’고 하였다.¹⁰⁾ 정신세계의 내면적 표현 수단인 드로잉의 역할은 개인적이고 자기 고백적이라는 성격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드로잉을 이루는 주요소인 선들은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드로잉은 직접적성으로 의식을 표출하는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이다. 또한 현대 미술에 있어서 원초적 행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학습되어진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과는 달리 드로잉의 이러한 특성은 본인의 작업에 있어 감성표현의 직접적인 수단의 의미를 갖는다.

또 다른 드로잉의 역할은 일종의 리얼리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와 그를 둘러싼 삶의 현실성과 진실을 어떤 장르보다 극명하게 반영한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재현하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며 때로는 심상 속의 잔상을 그려내기도 하고 혹은 무의식의 심리적 표현수단이 되기도 한다.¹¹⁾

이를 바탕으로 본인은 드로잉을 통해 아주 용이하고 간단하게 자신과 의사소통하는 실마리를 모색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나타냄으로써 가장 자기다운 모습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9) Carl Gustav Jung, 1875.7.26~196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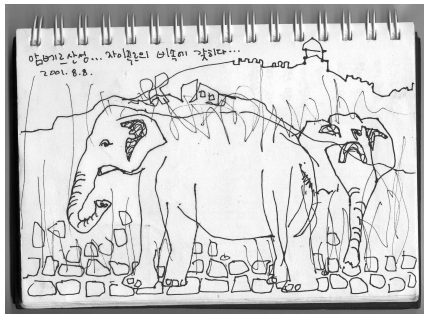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의 유효성을 인식하고 연상실험을 창시하여, S.프로이트가 말하는 억압된 것을 입증하고, ‘콤플렉스’라 이름 붙였다. 분석심리학의 기초를 세우고 성격을 ‘내향형’과 ‘외향형’으로 나눴다.

10) 윤현섭, 예술심리학, 을유 문화사, 1982 p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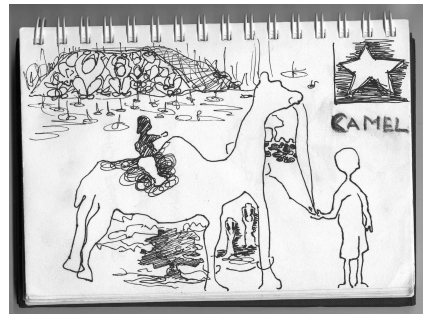
11) 국립현대미술관 편저, 『드로잉의 새로운 지평』, 서울: 열과알 1995, p5

하였다.¹²⁾ 또한 실물을 잘 묘사하고 표현하기 보다는 치밀한 계획이나 습작의 과정 없이 그 때마다의 상황과 기분을 바탕으로 온갖 감정을 마음 가는 대로, 즉 비형식적인 이미지로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드로잉이 지닌 자유로운 선은 기차나 버스 안, 어떠한 흔들림이나 방해공작 속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 오히려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그려진 드로잉은 그 움직임이 만들어낸 자유로운 운동성을 더해 치열한 현장감을 담아내고 상상력을 증대시킨다. 이는 어떤 장르와도 구별하기 힘든 광범위한 방법적 다양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하겠다. 드로잉이 가진 자유로움이야말로 여행의 감성을 가감 없이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그리고 드로잉의 ‘우연성’혹은 ‘현장성’은 순간의 감정이나 감동을 보다 자연스럽게 순발력 있게 표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도판 3) Drawing, 15*20, 2001



(도판41) Drawing, 15*20, 2001

드로잉은 마치 스냅 카메라의 기능과 같아서 순간순간을 포착하고 저장한다. 이렇게 포착되는 상황들은 감정의 뿌리로서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는 감성적이고 직설적이고 원초적이라는 점에서 여행의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드로잉이 과정으로서의 결과이며 미완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역시 여행의 감성과 맞아

12) 유경희, 「드로잉, 그 해방의 상상력을 위하여」, 『월간미술』, 2001. 3, p94

떨어진다. 본인은 드로잉의 자율적 원초성을 바탕으로 여행을 통해 표현된 자아성찰의 과정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인은 순수 예술의 전형으로서 드로잉과 영구성과 완벽성, 치밀성을 가진 관화적인 작업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 표현 방법으로는 드로잉이나 텍스트를 그대로 확대 복사하고 전사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기억 속에 있는 감정과 수집된 이미지에 현재의 느낌을 더하여 직접 판에 드로잉 하기도 하였다. 기법 면에서는 드로잉이나 전사의 표현이 가장 용이한 석판화 기법을 채용하였는데 석판화(lithography)는 평판의 대표적인 판재로서 유성의 어떤 재료로도 표현할 수 있고 자칫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드로잉 이미지를 판이라는 매체를 통해 좀 더 진지하게 보이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판법은 본인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아울러 순수한 감성의 첫 감동 상태를 화면위에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화의 가능성 여부를 시험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본인은 판화가 가지는 완벽성과 작품성과 기술의 선상에서 드로잉과 서로 접목시켜 생동감 넘치는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여행이 가져다준 감정의 기복을 끄집어내어 판재 위에 순발력 있게 드로잉을 하였다. 이런 경우의 작업은 드로잉과 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드로잉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게 되어 작가 자신의 즉흥적 감성을 화면위에서 자유롭게 펼쳐 보일 수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에게 당시를 뚜렷이 기억한다기보다는 기억을 바탕으로 경험의 조각들을 맞추는 과정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드로잉적인 구현을 위한 재료로 오프셋 잉크가 있는데 강한 유성

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액체로 이루어져 자유로운 붓의 느낌을 살리기 적합하다. 붓이나 형질 등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드로잉 할 수 있다. 그 운동감은 여행의 자유로움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재료로서 또한, 그려지고 흘러고 뿌려질 수도 있다. 또한 먹지 위에서 자유롭게 볼펜을 움직여 드로잉적인 표현을 유도하였다. 이는 먹지의 유성이 판에 강하게 베어 선의 운동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힘 조절을 통해 선의 일률적인 느낌을 피할 수도 있다. 매직이나 리도 펜슬, 크레용과 같은 재료들은 형태를 만들고 이미지로서의 텍스트를 표현하는 기본적인 드로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 모든 것들은 기억되어지는 여행의 추억이나 현재의 감성을 드로잉으로 표현하는데 매우 적합한 도구이다.

드로잉으로 나타낸 본인의 여행경험의 투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드로잉’ 그 자체이다. 드로잉의 판화로서의 구현이 가져다주는 우연의 효과를 이용하여 감정표현의 극대화를 유도하였으며 어떠한 제약과 구속 없이 표현하고자 하였다. 평소의 무수한 드로잉 연습과 습작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잘 훈련된 선과 점들이 어우러져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렇듯 여행을 통한 기록의 산실인 드로잉을 기본으로 한 판화로서의 구현은 감성적 이미지의 표현뿐만 아니라 궁극에서 추구하는 자아 성찰을 통한 표현과 치유의 과정인 것이다.

3) 시간의 이미지

본인은 시간이 경과함으로서 감정이 뒤섞이고 응집되는 표현 과정을 탐색하고 그 표현 형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의 작품 속에서는 흐릿해지는 기억에 따른 색과 그 표현 형태로서 얼룩, 번지는 것 같은 표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먼지의 흔적이나 구김 등을 통하여 여행의 시간성을 표현하였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시간 속에 묻혀 흐릿해진 형태는 감각에 의존하며 추상적 이미지의 아련한 감성으로 표현되거나 사진이나 드로잉 등의 도움으로 강한 형태를 지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여러 표현 중에서 먼저 시간이 경과한 여행의 감성을 색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한다. 2차원의 평면구조에서 중요한 시각효과를 가지는 색채의 경험은 정서를 통해 직감적으로 반영되며, 미술가는 직관을 바탕으로 색채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검정색을 기준으로 부분적으로 다양한 파스텔 톤의 색이 쓰였으며 검정색은 형태를 이루는 강력한 표현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피에르 솔라주¹³⁾는 강한 표현을 위해 색상을 제한하여 검정 색에 의한 화면을 구성해왔다. ‘검은색은 빛의 색이다’ 왜냐하면 밝음에 대비될 수 있는 극단의 것이며 색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나는 늘 표현 방법이 제한되어 있을수록 표현이 강력하다고 믿는다. 이런 점이 내가 사용하는 색채를 제한하여 선택하는 이유이다.’고 하

13) Pierre Soulages(1919)

프랑스의 화가, 프랑스 중남부의 로테스 출생. 어린 시절 고향의 로마네스크미술의 유품들을 접하며 성장하였다. 일찍이 독학으로 그림을 배우다가, 1939년 파리로 나와 초기에는 P.세잔이나 P. R.피카소의 작품에 경도되고 큐비즘의 영향을 받았으나, 1945년경부터는 외계에 관한 어떠한 대상성도 배제하는 순수한 추상양식을 창조해 나갔다. 작품은 검고 붉은 직선이 서로 교차하는 험찬 화면구성이 특색이며, 간결하고 자유, 대담한 공간표현에는 현대의 약동감이 나타나 있다.

였다. 이 점은 본인이 검정색을 사용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검은색의 원시성은 기억의 단편을 강하게 담아내고, 그 진지한 표현은 혼자 하는 여행의 고독을 담아내기에 적합한 색채이다. 그리고 검은색에 가까운 연필이나 볼펜, 콩테, 목탄 등은 여행지에서 늘 함께하며 감성을 표현하고 싶을 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이다. 또한, 검은색은 감성의 어둠으로 표현되거나 형태를 구분 짓는 가장 명확한 테두리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이는 백색의 여백이나 어떤 무채색과도 잘 어울린다. 이는 코끼리나 낙타 같이 형체가 있는 사물을 배경과 강하게 구분지어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여 본인이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드러낸다.

두 번째로 파스텔 톤의 색채는 형태 안에서 주관적인 감성을 담아낸다. 본인은 감성을 주관적인 채색으로 표현함으로써 색을 그 고유한 가치로 인정하고자한다. 작품에서 색채는 기억의 주관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 예로, 기억속의 날씨, 기분 등은 다양한 색의 혼합과 조합으로 표현된다. 즉, 미세한 감성의 변화를 혼색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파스텔 톤의 색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해 색을 통한 얼룩이나 번짐과 같은 효과를 전체 배경이나 형태 안에서의 감정변화의 흔적으로 사용하였다. 색 자체는 원색이 아닌 혼색으로 보라, 브라운 등의 저채도의 색을 부분 잉킹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색을 섞어 빛바랜 기억의 순간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색은 그 자체로서 기억을 떠올리는 향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은 색채를 큰 테두리 안에서, 혹은 그것을 벗어난 형태로서 자유롭게 표현하며 각각의 색 덩어리들은 변조를 이루며 전개시켰다. 미세한 차이를 둔 다양한 색채들은 혼합의 과정을 거쳐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흐려지기도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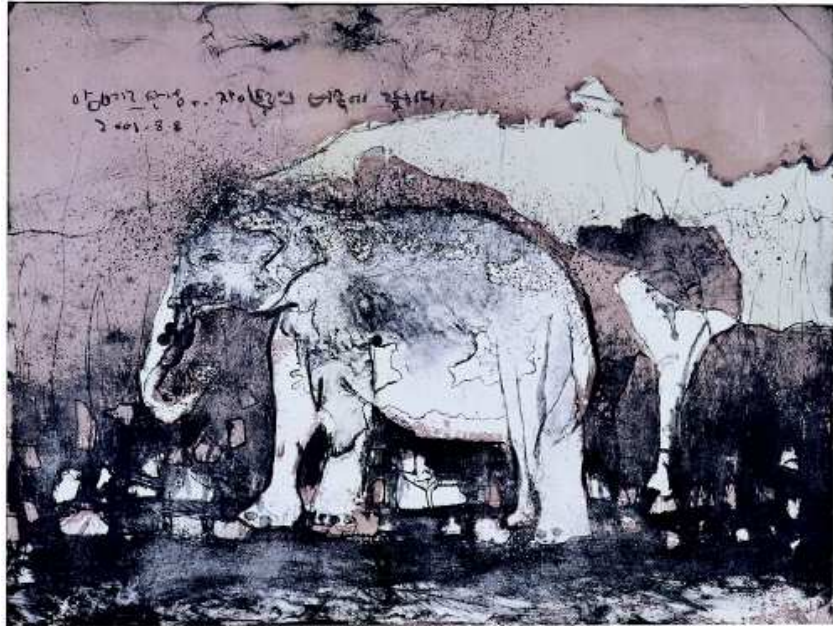
다.

한편,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얼룩이나 번짐의 효과는 여행이라는 과거의 기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여행은 과거의 기억들로 채워져 있으며 시간은 지금의 공간과 과거의 공간을 가시거리로부터 분리한다. 떨어진 기억과 현재와의 거리감을 나타내주기 위해 선명하고 뚜렷한 원색보다는 무채색이나 혼색을 사용하였고, 이에 라커시너를 떨어뜨려 만든 얼룩이나 번짐으로 시간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유성 스프레이는 감정의 잔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여백의 공간과 이미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끝으로 수집되어진 메모나 종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구겨지고 찢어짐을 반복하는데 이러한 시간성은 앞장에서도 언급한 ‘전사’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알루미늄 판에 잉킹하는 과정으로서 투명에 가까운 미색으로 손때의 흔적을 몰인 뒤 형질 등으로 구김의 표현을 하여 찍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여행의 시점으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성을 강하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와 같이 시간성을 강조하는 조형적 특성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색을 통한 표현으로 과거의 여행 추억을 현재의 기억으로 재해석함으로서 잃어버린 자아의 재발견과 그에 따른 치유에 의미를 두었다.

4. 작품 분석



(작품 1) *Heal the world*. 100*70 Cm, 석판화, 2004



(작품 2) *Heal the world*. 100*70 Cm, 석판화, 2005

(작품 1 ,2)

인도는 본인의 첫 여행지로서 그 의미가 깊다. TV속의 꿈같은 이미지들이 현실로서 살아 있음을 확인했을 때 본인은 종이와 연필을 꺼내들고 즉흥적으로 옮겨 담거나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다.

인도의 수분 가득한 뜨거운 공기를 마시며 몸을 적시는 땀에도 무디어 질 때쯤 코끼리가 줄지어 서있던 암베르 산성에서 비를 만났다. 무작정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창밖으로 비에 젖은 코끼리들을 보았다. 그들은 아무 감정 없이 내리는 비도 공기처럼 그저 받아들이는 듯 해 보였다. 그 모습은 인도인들의 모습과 많이도 닮아있다. 인도인들은 비가 오면 한쪽 구석에서 무작정 비를 피하거나 마치 비가 오고 있지 않는 것처럼 태연히 가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이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며 본인은 숨 막히게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모습을 빗물에 씻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태연히 비를 맞으며 가던 길을 갔다.

본인은 (작품2)은 암베르 산성에서 비를 피하며 관조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드로잉을 한 것이다. 현장에서 메모한 글을 그대로 옮겨 담았으며 보라색이 감도는 저채도의 파스텔 톤으로 당시의 차분한 감성을 표현하였다.

코끼리를 측면과 정면으로 채구성함으로서 코끼리의 외형을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원경의 이미지는 단순한 선과 면으로 표현함으로서 시선을 코끼리에 놓이게 하였다. 돌담의 표현은 화면 안에서 장식적인 효과로서 조형성을 살려준다. 또한 (작품 1)은 비를 맞으며 걸던 본인의 감정이입의 대상으로서 화면 안에 완전 측면구도로 고독한 현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감성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산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장료를 지불하고 받은 영수증은

그 현장성을 말해준다. 또한 코끼리의 순수한 눈과 송곳으로 찢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단단한 피부는 본인의 깊은 곳의 순수와 보호본능으로 본인을 가두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도 같다. 이는 본인이 코끼리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이유이다.

공간구성에 있어서 원근법을 무시하고 평면화해서 그린 것은 민화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시점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시도였다.



(작품 3) *Heal the world.* 200*70 Cm, 석판화, 2005

(작품 3)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를 경유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는 기억을 모아서 표현하였다.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낙타는 자이푸르에서 본인을 태우고 사막을 건넜다. 사막의 햇볕은 뜨거웠고 탈진상태에 이를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다. 당시 본인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는 낙타를 보면서 연민을 느꼈다. 그 감정으로 드로잉하고 사진을 찍어 추억으로 기억하고자 하였다. 측면의 구도는 먼 곳을 바라보는 낙타의 시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했으며 무릎 꿇은 모습의 특징을 살리고자 하였다. 낙타의 희생과 훈련되어진 순응은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의 모습과 닮아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하다.

사막을 지나 아그라에 도착했다. 타지마할에 들러 그 거대한 건축물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이푸르에 대한 여운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낙타와 타지마할은 하나의 이미지로 형상화 되었고 낙타의 형태 안에 타지마할의 사진이미지를 첨가함으로써 비로소 기억의 자율적 구조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오른쪽의 쪽지는 바라나시에서 만난 스웨덴 친구로부터 받은 메모인데 새로운 관계를 맺었던 시점을 그린다. 위에서부터 점점 흐릿해지는 색감은 기억의 흐려짐과 동시에 새로운 관계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스탬프가 가지는 강한 조형성과 함께 기록의 의미로서 본인이 체류한 게스트 하우스를 상징하고자 하였다.

좌우로 나뉜 분할 구성은 감성을 담은 형태적 이미지와 실증적 자료로서의 이미지를 각각 프레임 안에 담아 배치한 것이다. 두 개의 프레임은 따로 사인을 하여 독립적으로 보여 질 수도 있지만 의미가 통하는 두 이미지가 함께 일 때 더 큰 힘이 실린다. 1:1 분할 구성은 시각적으로 안정되어 보이며 균형을 이룬다. 이러한 화면 구성은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자함이다.

오른쪽 프레임의 전사 이미지는 현장경험을 통한 실증적 자료로서 경험의 증거 역할을 한다. 도장이 가지는 공식적인 확인과 주관적(사적) 기억의 이미지로 보이게 하였다.



A- Gasin ...
 & Hypertensive
 Case seen at hotel, checked through
 and followed. Treatment given
 for 5 days. Recd Rs-1250/- only
 (one thousand two hundred fifty
 for rendering the medical
 services, treatment and
 followup.
 MISS CHO EUN GUN
 2,1145, Lalla, C/16

(작품 4) Heal the world. 100*140 Cm, 석판화, 2005

(작품 4)

인도 여행 중 심한 열병을 앓은 적이 있다. 카주라호라는 도시의 한 허름한 식당에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숙소로 들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다. 가끔씩 눈을 떠 창밖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다. 높고 푸른 하늘, 그림처럼 떠있는 구름을 보고 있자니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내 몸, 상황에 화가 나기도 했다. 그 때의 모습을 소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열정은 넘치지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은 그림 안에서 강한 의지로 표현되었다. 붉은색에서 흐릿한 미색으로 번져가는 색감은 고통스러웠던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 한다. 텍스트로 채워진 하단의 그림은 나의 열을 단번에 식혀준 인도 의사의 처방전 이다. 고통이 해소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처방전은 화면 안에 확대복사 되고 전사된다.

이렇듯 인도는 고통의 기억 또한 강하게 남겨주었고 이젠 추억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로 기억된다. 열정을 가지고 때론 고통을 받고 치유하는 과정은 단편적인 추억이지만 이는 우리 모두의 삶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자화상으로서 자아성찰의 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위아래로 나뉜 구도는 문구점에서 파는 그림일기장에서 형식에서 나온 것이다. 위 아래로 그림을 그리는 부분과 일기를 쓰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본인은 이러한 정형화된 틀 안에 자유로운 이미지를 추가함으로써 과거 즐겨 그리던 그림일기장을 재현하였다. 또한 상하로 나뉜 2분법적 구도는 텍스트를 덮고 선 이미지의 형상을 구축하며,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작품 5) *piece of life*. 100*140 Cm, 석판화,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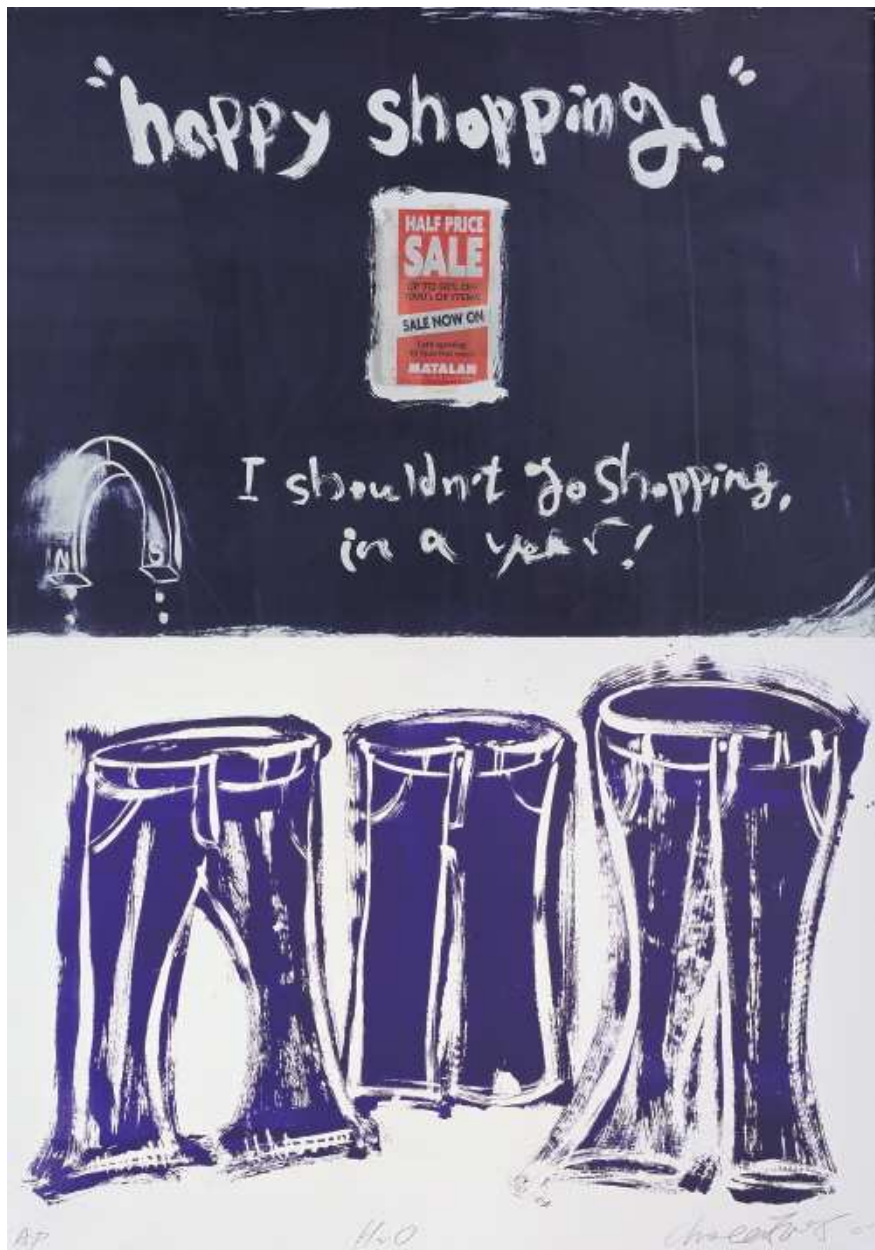
(작품 5)

이 작품은 본인의 여권에 찍힌 사증을 바탕으로 한다.

여권에 등장하는 스탬프는 강한 조형성을 지닌다. 스탬프 안에는 날짜나 장소 이름 등의 기록이 남겨진다. 이것은 무언가를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여권의 사증과 같은 이미지는 본인이 경유한 여행지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 안에는 날짜와 장소 등이 텍스트 형식으로 기록되지만 시간이 지남으로서 그것은 그저 문자가 아닌 감성 이미지로서 읽혀지는 것이다. 공항의 긴 줄을 기다려 낯선 나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허가를 받던, 도장이 찍히던 순간의 기억으로 형상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여권은 여행의 시작이나 맺음을 알려주는 기호로서 기록되어지며 감성이 시작되는 여행의 출발, 혹은 끝자락의 극대화된 감성을 표출하는 기록의 표현이다.

화면 안에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드는 구성은 여권을 하나의 통로로서 형상화 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는다. 여권은 미지의 세계로의 ‘문’이며 그곳에는 무수한 사건과 이야기가 가득할 것이다.

상상할 수 있는 사건들은 이미지로서 비춰지는 문자로 표현하였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 상처를 숨기고 대중 속에 파묻힌 현대인으로서 살아가는 본인을 거침없이 걸어 나오는 코끼리에 대입시켰다. 코끼리를 정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서 여행을 통해 용기를 가지고 혼자서 부딪혀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본인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6) H2O. 100*140 Cm, 석판화, 2005

(작품 6)

스치듯 지나가는 일상의 무수한 사건중 하나를 폴라로이드로 촬영 하듯 포착하여 이미지화 시켰다. 위아래의 분할 구도를 취하였으며 여백이 주는 강한 색의 대비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를 시각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할 구도는 자유분방한 드로잉적인 요소를 안정적으로 묶어준다.

유럽여행 중 파리는 'Big Sale' 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큰 행사를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 청바지를 샀던 날의 일기이다.

페미니스트 개념미술가인 바바라 크루거는 '나는 쇼핑한다, 고로 존재한다'(I Shop, Therefore I Am)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 관심을 통하여 소비한다. 이는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상품의 문화적 의미를 쇼핑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표시하는 수단이자 하나의 의사소통 시스템이다.

결코 풍족하지 않은 여행경비의 일부를 쇼핑으로 써버린 데 대한 반성을 담은 일기이다. 여행의 단편으로서 생산 활동이 아닌 소비행위를 통해 정체성을 획득했던 순간이다.

또한 본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광고 전단지 일부를 과감히 삽입함으로서 현장성을 살리고자 하였다.



(작품 7) *piece of life*. 25*30 Cm, 아트북, 2005



(작품 7-1)



(작품 7-2)



(작품 7-3)



(작품 7-4)

(작품 7)

이 작품은 여행기로서의 그림일기이다. 여행 중 드로잉 북에 자연스럽게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트 북을 제작하였다.

여행이라는 또 다른 일상을 살아가는 본인의 모습을 문자와 형상, 사진이미지의 전사, 혹은 복사 등의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그 안에는 무수한 사진들과 인쇄물들이 수집품처럼 배치되었다.

그림일기 형식의 구성은 드러냄의 미학으로 본인의 상처와 일상을 들추어 드러내고 치유하고 비우는 하나의 의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치유인 셈이다.

또한 아트 북 형식으로 제본하는 과정 즉, 여러 장의 이미지를 꿰매어 묶는 과정은 사건들을 하나의 형태로 집합시켜 수집하는 여행 후의 과정과도 같다.

(작품7-1, 2, 3, 4)는 아트 북 속의 이미지이다. 여행 중 변하는 감정의 기복과 일상을 그림일기 형식으로 나타내었다. (작품 7-1)는 사막에서 유난히 외로워 보이던 낙타의 이미지를 단순화 시켜 실루엣으로 표현함으로써 외로움을 극대화한 치유의 의지를 담았다. (작품 7-2)는 거북이가 작게 삼입됨으로서 작고 약한 생명체로서의 본인을 형상화하였다. 여행 중 무언가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의 불안한 순간의 심리를 담았다. (작품 7-3)는 달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목마의 형태를 취함으로서 막막한 당시의 심정을 담고 있다. (작품 7-4)는 차오르던 여행의 열정을 독수리의 날개 짓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폴라로이드처럼 순간의 감정을 담아낸 것으로 지나치기 쉬운 감정을 찰나를 잡아 표현함으로써 기록의 형식을 취한 한편의 책으로 묶여졌다.



(작품 9) *piece of life*. 200*140 Cm, 석판화, 2005

(작품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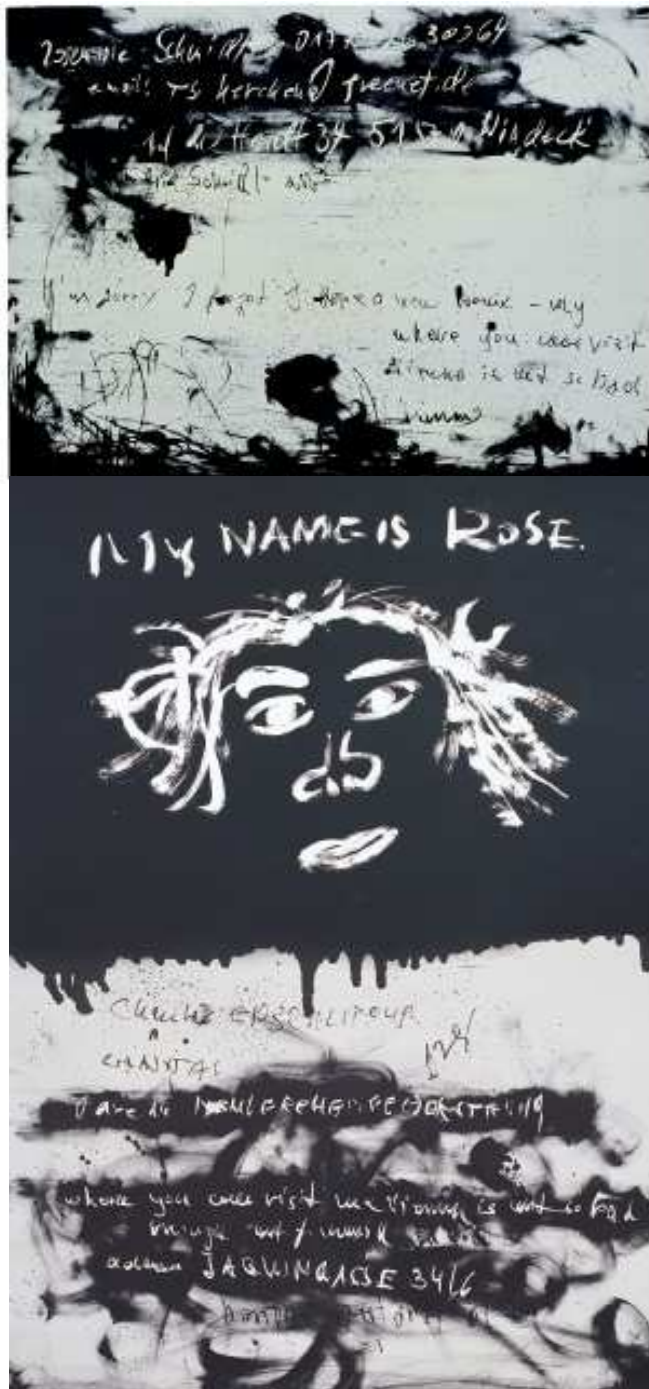
굳이 어떠한 형태로 구분 짓지 않아도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있다. 눈을 감고 바람과 공기를 피부로 느끼고 철저히 감정의 흐름을 탄다. 본인은 (작품 8, 9)에서 보다 강한 표현을 위해 색상을 제한하여 검정 색으로 화면을 구성하였다. 검은색은 빛의 색이다. 따라서 검은색은 그 자체로서 밝음을 표현한다. 본인은 최대한 색을 제한함으로써 강력한 표현을 하고자 한다.

(작품 8)은 피사의 사탑 앞에 앉아 한참동안 그곳을 응시 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제작 되었다. 그곳의 파란 하늘은 높기만 했고 구름은 그림 같았다. 하지만 멋진 풍광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여행의 고단함이 가져다 준 깊은 고독이었다. 본인의 시선 속의 아름답던 풍경은 삭막한 도시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뼈뺀하게

서있는 사탑이 강남의 커다란 빌딩 중 하나처럼 무의미 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상상속의 구름은 검게 변하고 화려한 색채는 가슴에 전달 되면서 모노톤의 감성으로 기억되었다. 당시에 기록했던 글은 상상 속의 이미지와 섞여 부유하는 이미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작품 9)는 유럽 여행 중 비 오던 날의 기억을 형상화 하였다. 천둥 번개가 치던 날 배낭과 옷을 흠뻑 적시고 숙소에 들와와 썼던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 되었다.

속도감 있는 검은 터치들은 빗속에서의 다급한 마음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불규칙한 터치들은 당시의 감정을 기억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표현된 감성의 흐름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막연한 감정분출로 읽혀지는 듯하다. 앞으로 작업 방향에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표현 뿐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보다 쉽게 읽혀질 수 있는 형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작품 10) *piece of life*. 100*210 Cm, 석판화, 2005

(작품 10)

독일 뮌헨에서 무작정 이름 모를 도시로 가는 기차를 탄 적이 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벗어나 철저히 그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언제나 행운은 계획되지 않은 곳으로부터 찾아오곤 한다. 우연히 앞에 앉았던 나이지리아인의 흑인 여자와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영국에 사는데 잠시 독일 친구 집에 여행을 온 것이며 런던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며칠 뒤 영국으로의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던 나의 얘기를 듣더니 선 듯 주소와 연락처를 적어주며 런던에서의 제2의 만남을 약속했다. 그때부터 내게 남겨진 것은 작은 종이 한 장의 메모 뿐이었지만 며칠 뒤 그 메모 한 장을 들고 런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또한 본인은 런던에 머무는 동안 화면에 등장하는 이름 '로즈'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정과 추억을 남겼다.

현대사회는 이해관계로 맺어지고 익숙해진다. 본인은 '로즈'와의 만남을 통하여 현대사회가 주는 인간의 벽을 헐어버리고 인종과 국가 간의 벽을 허물었으며 그저 순수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를 통해 치유를 경험하였다.

우연히 '로즈'를 만나 주소와 연락처를 남기고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작업은 시작되었다. (작품 10)는 '로즈'와 제2의 만남을 가진 뒤 아쉬운 이별을 하던 당시의 감정을 시간 순서로 형상화 한 것이다.

전체 화면을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로 3등분하여 마치 그림책과 같이 읽혀지게 구성하였다. 검은 터치들은 감성을 표현하기에 앞서 조형적으로 텍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당시의 상황을 순차적인 기록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는 읽혀지기 위한

문자로서의 의미뿐 아니라 감성을 담은 하나의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한다.

같은 크기의 그림 3장의 조합으로서 프레스기에 들어가는 규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III. 결론

본인은 여행을 통해 자아를 재확인하고 치유해 가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기록과 기억들이 자유로운 드로잉 형식을 취하며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예술은 일상생활의 체험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작가는 동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고 생활하면서 그들과 끊임없이 갈등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현재의 삶에 익숙해져서 결국 주위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순응하게 된다. 본인에게 있어 이러한 행위와 존재 방식은 작가의 내적 사유를 제약한다. 때문에 작가에게는 일상을 놓아두고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수단이 필요하다. 본인에게 이러한 탈일상의 수단으로써 작품의 발상을 위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은 여행이다. 본인의 작업은 여행을 통해 느끼는 감성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록과 기억의 단편들을 고백적인 성격의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는 데서 시작한다.

여행은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아 확장의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와 삶에 대해 한 단계 높은 성숙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여행을 통해 수집된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으로부터 표출된 감성을 이미지화 하였다.

여행의 일반적인 의미를 확인하고 개인적인 체험을 통한 경험이 자아성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현대사회의 맥락 속에서 익명성, 즉 존재의 부재가 주는 상처의 치유를 통해 자아 정체성 확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체험인 여행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여행의 이미지 표현을 설득력 있게 설명 하고자 하였다.

조형적 요소로서 기록으로서의 이미지화와 드로잉의 감성표현, 시간성에 의한 표현방식에 관해 논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표현 과정을 통하여 경험 자체로 그치는 여행이 아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기회로서의 여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인은 이 논문을 통해 작품 발상의 동기와 내용, 표현 형식 등을 되짚어 보고 조형적 측면으로 규명해봄으로서 자아성찰을 통해 그것이 작품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여행의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여 표현 방법적 시도에 있어서 미약했던 점은 앞으로의 작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여행을 통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실험적이고 심도 있는 자세로 작업에 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루돌프아른하임 (김재은 역), “예술심리학 下”,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 원동석 외, “시각과 언어 1_ 산업사회와 미술”, 열화당, 1993
- 박준원, “예술노트”, 미술문화, 1995
- 노만 브라이슨 외(김용희, 양은희 역), “기호학과 시각예술”,
시각과 언어, 1995
- 루돌프 아른하임(김춘일 역), “미술과 시지각”, 미진사, 1996
- 이광원, “여행학 개론”, 학문사, 2000
- 앙리 포시옹, “앙리 포시옹의 형태의 삶”, 학고재, 2001
- 롤랑 바르트, “텍스트의 즐거움”, 동문사, 2002
- 존 듀이(이재언 역), “경험으로서의 예술”, 책세상, 2003
- 이진홍, “여행이야기”, 살림, 2004
- 알랭 드 보통, “여행의 기술”, 이레, 2004

<간행물>

- 유경희, 「드로잉, 그 해방의 상상력을 위하여」, 『월간미술』, 2001

ABSTRACT

Self-reflection through Travel Image Expression

Eun-Jung, Cho
Print Making Department
Sungshin women University

In this thesis for a master's degree, I analyze the contents and the expression of my works in 2005.

People today have no time to rest themselves because of rapidly changing lifestyle. Travel presents them the opportunity to look after their soul. Travel is not merely a way to leave home. Rather, travel is a way to meet one's true self.

The images of my works come from my own experiences which I obtained en route. It means that I express my idea and feeling that I had while traveling. This process includes the purpose of self-reflection and the cure of mental hurts in modern life, such as self-alienation and loss of self.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general meaning of travel and applied it to myself. I explained the intention to find and express one's true self by traveling, and gave an account of the curative role occurring in this process. I described the process in which records were changed into images. In the process of materialization, I looked into the meaning and the role of drawing as a means of expressing my sensibility unrestrictedly, mentioned the necessity to convert drawing into printing, and then researched any other

different way. I, also, treated of the process to combine the color, stains, and wrinkles into the characteristic of travel related with time. Lastly, I analyzed my works in order to confirm the visual realization of my theme, 'Self-reflection through Travel Image Expression'. In conclusion of this thesis, I made the significance of points that I presented in the introduction clear.